



예쁜이 수술과 양귀비 수술

황경진 박사 | 그레이스병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의 근육이나 피부는 자연히 늘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특히 아기를 돌이

상 자연분만 한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에서 질이 넓어지고 힘없이 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예쁜이 수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진료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가 늘어진 질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살다 보면 리모델링(Remodelling)이 필요한 것처럼 하물며 출산을 두세 번 한 여성들의 리모델링도 역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질이 심하게 늘어진 경우엔 질벽이 밖으로까지 빠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오래 서 있거나 쪼그리고 있을 때 혹은 장시간 걸을 때

아래가 빠질려고 하는 불편한 느낌까지 갖게 된다. 원래는 이런 경우가 후질벽 성형술, 즉 예쁜이 수술의 첫 번째 대상이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궁까지 그대로 내려앉게 되어 쑥 빠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쁜이 수술을 할 때는 골반근육 자체를 힘있게 당겨 주어 전반적인 골반근육의 힘이 강화되기 때문에 요실금 방지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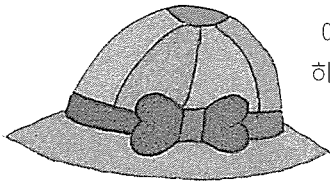
그러나 이미 요실금이 생겨서 심한 경우에는 예쁜이 수술은 전혀 효과가 없다. 즉 예쁜이 수술이 요실금 수술치료는 될 수 없고 그 때는 대신 요실금 근본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아무튼 수술 후 골반근육운동까지 열심히 하게 되면 요실금을 많이 예방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예쁜이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생활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두자. 그렇다면 예쁜이 수술을 하면 정말로 성감은 좋아지는 것일까? 많은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답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다.

불감증의 원인 중 하나가 질벽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둔했을 때인데 질벽이 넓어서 여유 공간



이 많을 때보다는 질벽이 좁을 때 조여지는 느낌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쁜이 수술은 단순히 질벽을 좁혀 주는 수술이 아니다. 특히 질 입구만 좁혀 준 경우엔 분비물이 잘 배출이 잘 되지 않아 고이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질점막만을 잘라 내서 질벽만 좁혀 준 경우에는 오히려 분비물이 줄어들어 건조하거나 성교통으로 고생하는 수도 있다.

예쁜이 수술이 정말 잘 되었는 가는 얼마나 점막 아래 골반거상근육을 힘있게 당겨 강화시켜 놓았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최소한 질벽입구에서부터 자궁경부 입구 직전까지 깊숙이 그것도 층층이 봉합을 해 주어야 나중에 분비물 등이 고이지 않게 되어 성공적인 수술이 된다.

그렇다면 예쁜이 수술만 하면 무조건 명기(名器)가 되는 것일까? 그러나 예쁜이 수술을 그렇게 만능으로 과신하면 안 된다. 수술만 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술 후 탄력있는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골반근육 강화운동이 필요하다. 뽀뽀기나 윗몸 일으키기 혹은 향문을 조여주는 운동이 도움된다. 질운동을 할 수 있는 구슬(콘)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게 별로 약 4~5가지 종류의 콘이 있는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무거운 것으로 바꾸어서 질운동을 하는 것이다. 즉 질운동이 잘 되어 빠지지 않으면 점점 더 무거운 것을 사용하는데 저녁 시간 텔레비전을 보면서 서서 운동을 하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이나 콘운동도 중요하지만 성생활에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성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남편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그렇다면 양귀비 수술이란 어떤 수술을 말하는 것일까? 예쁜이 수술의 가장 큰 약점은 질점막을 잘라낸 결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건조증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예쁜이 수술을 할 때는 갱년기를 생각해서 절대로 지나치게 좁게 해서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예쁜이 수술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 양귀비 수술이다. 이 수술은 질점막을 전혀 잘라내지 않고서도 골반거상근육을 충분히 당겨 주어 충분히 질을 좁혀 주면서 예쁜이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수술 후 질건조증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잘라내지 않은 점막을 특이한 주름으로 만들어 좁으로써 입체적인 모양이 되어 오히려 감각적으로도 더 좋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